

## 노조파괴 언제까지...재벌 천국, 노동 지옥

### 유성 노조파괴 9년, “청와대 걸자해지 해야” ... 유성기업지회, 염천 속 매일 오체투지 투혼

“쟁의행위 찬반투표 두 시간 했다고 유성 자본은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명박은 연봉 7천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한다며 노조파괴를 사실상 승인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자동차 관련 제조업 현장에서 일반적인 근무 형태가 돼 가고 있지만, 이를 처음 요구하고 쟁취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대한 탄압은 9년째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9년째 계속되는 노조파괴 종식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에 나섰다. 지회는 2011년 이명박 정권의 묵인 아래 시작된 노조파괴가 노동 존중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현대차와 유성 자본은 물론 국가 권력까지 유착해 자행한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를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끝내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을 출발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광화문에 도착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24일 서울 시청 옆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를 이어갔다.

불법더위 속에 조합원들의 양쪽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아스팔트 위로 팔죽땀이 쏟아졌다. 오체투지 행렬은 9년의 참혹한 노조파괴 시간처럼 느리게 청와대를 향했다. 이틀에 걸친 오체투지로 청와



대 앞에 도착한 지회는 ‘유성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주교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파괴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농성하고 땅에서 오체투지도 벌였지만, 자본과 정권은 묵묵부답이다. 노동자들을 가족이라 부르던 자본은 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요구에 수십억 원을 들여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규탄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이제 남은 방법은 오로지 투쟁뿐이다.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연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조파괴는 지난 정권이 계획해 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며 고용노동부 예산을 투입해 조직적인 노조파괴를 실행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라며 모른 채 하지 말고 대표 적폐인 노조파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9년 동안 힘들었지만 열심히 싸웠다.

이제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중지부를 찍고, 하반기 노동법 개악도 막아내자”라고 결의를 북돋웠다.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유성 자본은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한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며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았다. 주간 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 날 저녁 유성 자본은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노동부는 이를 승인했다”라며 분노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노조파괴를 멈추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호소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 힘이 없다고 하더니 정권을 잡은 지금은 여당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노조파괴를 방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이명박, 박근혜가 시작한 노조파괴를 노동 존중을 외치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여 촉구했다.

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유시영 회장의 배임과 횡령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천안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7월 1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파괴 종식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7월 22일부터 상경투쟁에 들어갔다.

지회는 7월 25일과 26일에도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저녁 7시부터 문화제를 연다.

# “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고수, 처벌 않는 검찰·노동부”

불과 정규직 전환, 원청 사용자성 쟁취 2차 집중투쟁 ... “최고 결정권자 처벌 의지 밝혀야”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4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의 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1차 집중투쟁을 벌였다.

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여섯 개 지회(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기아자동차 광주, 소하, 화성비지회) 대표자들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개악, 불법 파견 방조 문제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이 불법 파견을 확인한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불법 파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회는 불법 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노동부와 검찰의 태도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 지회는 “2018년 노동부가 당사자 대화를 통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노동부와 검찰이 최고 결정권자인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식사를 생산하는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참가해 사측의 최저임금 도둑질을 강하게 규탄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악했다. 이 때문에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17만 1,360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사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핑계 대며 “문재인

정부가 시킨 일이니, 정부를 원망하라”라며 임금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김영아 지회장은 “사측은 노조 교섭 위원이 교섭에 나오는 시간도 인정하지 않는다. 교섭 시간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연차를 다 쓰고 교섭에 나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라고 폭로했다. 현대그린푸드 조합원들은 “사측은 최저임금조차 빼앗아 가고 있다.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서울 톨게이트에서 25일째 농성 투쟁 중인 박순양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회장이 연대사를 통해 불법 파견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노조 비정규직지회 대표자들이 ‘정몽구 불법, 정의선 불법, 불법 파견 15년, 현대그린푸드 5년 임금동결, 최저임금 도둑질, 평생 비정규직’이라고 쓴 상징물을 부수며 대화를 마무렸다.